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애착과 자아개념이 미치는 효과: 성차,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관하여*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Self Concept on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Differences,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장 영 은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 Eu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 peer-, and teacher-attachment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via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There were 284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ges 12 to 13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All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es.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most of the variables, including attachment, self concept, and career maturit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applied to the data revealed that there were both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attachment and self concept on career maturity. It was found that self concept played a mediating role on career maturity.

주제어(Key Words) : 애착 (attachment), 자아개념 (self concept), 진로의식성숙도 (career maturity), 지연효과 (lagged effects), 성차 (gender difference)

Corresponding Author : Chang, Young Eun,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72-1 Nae-Ri, Daeduk-Myun, Ansung-Si, Kyungki-Do, 456-756, Korea Tel: +82-31-670-4789 Fax: +82-31-670-3265 E-mail: yechang@cau.ac.kr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I. 서론

인간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흥미와 능력을 반영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성공적인 성인기는 직업을 통해 생산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Erickson, 1968). 직업 선택을 위해 성인기 이전의 발달단계에서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쌓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가족, 또래, 학교, 그리고 사회라는 다양한 수준의 생태학적 맥락으로부터 수집하게 된다. 생애 발달에 있어서 직업의 탐색과 선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이에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자아에 대한 이해와 외부환경의 탐색을 통해 이루어진다(Erickson, 1968; Super, Savickas, & Super, 1996). 즉, 진로탐색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생애전반을 걸쳐 형성되는 능력, 흥미, 가치관과 주변의 여건이라는 외부적 조건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장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Bailey & Stadt, 1973). 진로의식의 발달에 있어 주변의 가깝고 의미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과,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된다. Blustein, Prezioso와 Schultheiss(1995)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하여 형성된 애착이 발달과 함께 점점 넓어지는 주변세계에 대한 자신 있는 탐색을 가능하게 하며,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험하게 되고, 이러한 탐색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진로의식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성공적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진로교육과 상담을 주제로 진행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전의 진로의식성숙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Super(1957)는 진로의식발달의 생애발달적 접근을 통해 출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업적 과업의 생애과정을 조명하면서, 초등학교 졸업기인 13-14세를 전후한 시기까지를 진로발달의 성장기라고 명명하고, 보다 넓은 사회관계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았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아우르는 긴 시간에 걸쳐 발달된다는 것을 강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Tuckman(1974)은 자아인식, 생애인식 및 생애의사 결정 등의 주요 요소에 기반을 둔 아동기 진로개발 교육이론을 전개하면서, 초등학교 4-6학년 시기를 직업세계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직업의 성격을 이론화하며, 기술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위치 등 현실에 기반을 둔 직업이해를 발달시키는 시기라 보았다. 김충기와 천

귀순(2003)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진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면서 구체적 진로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최근 국내 연구들도 초등학생의 진로흥미 및 직업의식성숙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내고 있다 (e.g. 곽준규, 구만호, 2000; 구승신, 박성현, 2007; 김충기, 천귀순, 2003; 이주리, 2009; 지용근, 양종국, 2003).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에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애착과 자아개념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애착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형성된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라고 묘사된다. Bowlby (1982)는 모든 연령의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접근성 및 반응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더 나은 사회적, 정서적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기의 애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연구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애착은 새로운 환경을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안전기지로 작용함을 밝혀왔다 (이사라, 박혜원, 2005; Armsden & Greenberg, 1987; Blustein et al., 1995; Greenberg, Siegal, & Leitch, 1983).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애착이 진로탐색이나 직업의식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밝혀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측면, 즉 부모와 많이 대화하고,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그리고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적절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구승신, 박성현, 2007; 김충기, 천귀순, 2003; 서경아, 2003; 이주리, 2009; 지용근, 양종국, 2003; Blustein et al., 1995; Kenny, 1990; O'Brien & Fassinger, 1993).

하지만 애착 대상으로 부모만을 포함시키는 연구는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직업의식성숙도에 한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기 동안 또래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발달적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또래는 애착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이 시기 또래관계는 학교 적응 및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혜, 고운주, 1999;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Paterson, Pryor, & Field, 1995; Vandell & Hembree, 1994). 다시 말해, 사회생활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애착이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부모 애착 외에 또래와의 애착 관계도 직업의식성숙도의 관련변인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Felsman과 Blustein(1999)은 부모애착과 더불어 가까운 친구와의 애착과 친밀감이 진로탐색과 실제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진로개발과 관련된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있어 또래의 역할이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국내에는 또래애착이 직업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교사를 하나의 동일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교사의 조언이나 교사와의 관계가 자신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Metheny, McWhirter와 O'Neil (2008)은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의 친밀감과 교사의 지지가 강할수록 진로결정효능감과 직업에 대한 기대 역시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교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나,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관계의 질을 직업의식성숙도의 관련 변인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교사와의 애착도 직업의식성숙도의 관련변인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애착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의식성숙에 우선하여 성취해야할 발달과업으로는 자아개념의 발달이 있다. Super 외(1996)은 생애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의식성숙을 설명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자아개념을 발달시켜가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확대시키게 되고, 이러한 자아개념의 발달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온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연구들은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승신, 박성연, 2007; 신철, 1997; 채진영, 2009; Super et al., 1996). 진로의식성숙에 있어 자아개념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의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애착이 진로의식성숙도 영향을 미치는 매카니즘은 탐색과 자아개념발달로 설명될 수 있는데, 아동이 형성하는 애착은 이후 청소년기는 거치면서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대해 자신있게 위협을 감수하며 탐색하는 힘을 주게 되며, 더 넓은 환경의 탐색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이에 따라 보다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진로탐색과 적극적인 진로결정으로 연결된다 (Blustein et al., 1995).

안정된 애착이 올바른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발표되어오고 있다 (Fass & Hubman, 2002; Hoffman, Levy-Shiff, & Ushpiz, 1993; McCormick & Kennedy, 1994). 특히, Laible, Carlo와 Roesch(2004)는 부모 및 또래와 형성한 애착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로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Lapsley, Rice와 FitzGerald(1990) 또한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자아정체성 발달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Paterson, Pryor와 Field(1995)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래와 형성한 안정된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처능력,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이라는 자아개념의 세 차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들도 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유의한 관계를 지지하는데, 이사라와 박혜원(2005)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걸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또래 및 교사의 지지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예측하였으며, 홍세희 외(2006) 역시 자아개념의 변화패턴을 추정한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가 자아개념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구승신과 박성현(2007)은 부모감독, 애착, 폭력 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아개념 통해 직업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나, 또래, 교사의 영향력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애착이라는 개념보다는 부모자녀관계 전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국내외를 통해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이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개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을 예측한다는 매개효과 모델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현실이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성숙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에서 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검증된 바 있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에 보다 중요성이 더해지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의 질의 역할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대상과의 애착이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이라는 매개효과를 통해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 구성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성숙에 있어 성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신은영과 김누리(2004)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반면, Cole 외(1999)은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개념의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보였다. 홍세희 외(2006)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아개념을 하위영역 별로 나누어 성차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신체 및 운동영역, 그리고 성취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서영역, 친밀감,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자아개념은 여학생이 높거나,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진화, 전경숙, 1995; Mboya, 1999). 이러한 자아개념 영역별 성차는 애착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전 연구에 따르면, Laible, Carlo와

Roesch(2004)는 부모애착과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아의 경우 그 관계의 강도가 더 강함을 밝혔다. 하지만 Rice(1990)는 자아개념 발달에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의 진로의식 연구영역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비하면서도 일치하지 않아서, 우종순(2000)은 초등학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반면, Felsman과 Blustein(1999)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과 성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Blustein(1995)은 진로의식자체에서의 성차에 관한 실증적 증거와 이론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진로의식성숙도를 설명하는 성별의 고유한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한 Felsman과 Blustein(1999)은 진로의식에서의 성차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직업유형별 성공정관념의 변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해석하기를 권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연령대 (e.g.,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진로의식의 성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모델 구성 역시 필요할 수 있겠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는 애착,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의 영역 모두에서 일관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자아개념의 발달, 그리고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살펴면서 지연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면 안정된 애착에 대한 지각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예측하고, 자아개념은 올바른 진로의식의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되는데, 세 변인간의 동시적 관계를 살펴는 것과 동시에, 이전에 형성된 애착과 자아개념이 이후의 진로의식성숙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서,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었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 (부모애착, 또래 애착, 교사애착)과 자아개념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자아 낙인)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지연효과가 존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2,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2844명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년 주기로 3년간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표본유지율은 2차년도에 96.2%였으며 3차년도에는 95.3%로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파악한 조사대상 초등학생은 남학생 1524명(53.6%), 여학생 1320명(46.4%)이었으며, 대상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2. 잠재변인의 구성과 측정도구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모델화하고 검증하기 위해 애착,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도라는 세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애착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의 세 관찰변인으로 구성되며,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자아낙인의 세 관찰변인, 그리고 진로의식성숙도는 진로 인식과 미래직업결정의 두 관찰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응답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아버지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59 (5.7)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90 (6.8)
	고등학교 졸업	1207 (43.3)		고등학교 졸업	1695 (61.0)
	전문대 졸업	268 (9.5)		전문대 졸업	211 (7.6)
	대학교 졸업	976 (35.0)		대학교 졸업	642 (23.1)
	대학원 이상	178 (6.4)		대학원 이상	41 (1.5)
어머니 취업 여부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94 (7.0)
	취업	1413 (50.4)		101-200만원	789 (28.5)
	비취업	1410 (49.6)		201-300만원	883 (31.8)
				301-400만원	483 (17.5)
				401만원 이상	422 (15.2)

a. 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1) 애착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묻는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등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의 Cronbach's α 는 1-3차년도에 각각 .76, .82, .82였다. 1차년도-3차년도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연구의 설문문항 중 '친한 친구 애착'으로 구성된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랜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등 친한 친구에게서 느끼는 애착감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건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1-3차년도에 걸쳐 각각 Cronbach's α = .66, .73, .78였다. 1차년도-3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교사애착. 교사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개발한 설문지 문항 중 1차년도부터 3차년도에 걸쳐 반복 이용한 '선생님 애착'에 관한 3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 교사와의 동일시 및 애착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 .55, .64, .68 (1-3차년도)이었다. 1차년도-3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2) 자아개념

긍정적 자아개념.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의 '자아관'을 묻는 문항 중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관한 3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묻는 5점 Likert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1-3차년도 신뢰도는 모두 Cronbach's α = .83 이었다.

부정적 자아개념.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의 '자아관'을 묻는 문항 중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관한 3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등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1-3차년도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 .81, .81, .82였다.

자아낙인. 자아낙인은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의 '자아관' 설문문항 중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과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의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등 자신이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한다.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1-3차년도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 .79, .70, .74이었다. 자아개념에 대한 3개의 관찰변인은 모두 1차년도-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진로의식성숙도

진로인식.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중 '진로성숙도'를 묻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역코딩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차년도 진로의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9였다.

미래직업결정. 미래직업결정여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중 '학생은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해 놓은 상태인가?'라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초등학생들은 '1 =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2 =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또는 '3 = 아직 정해놓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의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결정이 확실함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AMOS 1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SEM) 기법으로 개념적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및 성차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애착을 구성하는 부모, 또래, 교

〈표 2〉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분석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별 차이검증

변인	전체 M(SD)	남자 M(SD)	여자 M(SD)	t(df)
부모애착	22.03 (4.65)	21.58 (4.57)	22.55 (4.67)	-5.42(2669)***
또래애착	16.65 (2.74)	16.26 (2.81)	17.09 (2.59)	-7.87(2669)***
교사애착	8.03 (2.57)	7.82 (2.48)	8.26 (2.65)	-4.47(2669)***
자아긍정	9.50 (2.41)	9.54 (2.40)	9.46 (2.41)	.80(2669)
자아부정	6.71 (2.74)	6.80 (2.82)	6.61 (2.65)	1.49(2701)
자아낙인	12.08 (3.93)	12.46 (4.17)	11.65 (3.60)	5.33(2669)***
진로인식	27.22 (4.92)	27.00 (5.07)	27.48 (4.73)	-2.54(2670)*
미래직업결정	2.26 (.65)	2.21 (.68)	2.31 (.61)	-3.83(2669)***

* $p < .05$, *** $p < .01$

사와의 애착에서 모두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아개념의 구성변인 중 자아낙인은 남학생 ($M = 12.46, SD = 4.17$)이 여학생 ($M = 11.65, SD = 3.60$)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진로의식성숙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고($t = -2.54, p < .05$), 미래의 직업결정의 확실성($t = -3.83, p < .001$)도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음이 밝혀졌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또래애착, 교사애착,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자아낙인, 그리고 진로인식과 미래직업결정 정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래애착 역시 긍정적 자아개념($r = .17, p < .001$)과 자아낙인($r = -.06, p < .01$), 진로인식($r = .10, p < .001$)과 미래직업결정($r = .06, 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또래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자신을 문제아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더 성숙된 진로인식을 가지고,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보다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와의 안정적 애착 역시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r = .12, p < .001$)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감소($r = -.07, p < .001$)와 관계되어 있었다. 또한 교사 애착은 미래직업결정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r = .04, p < .05$)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낙인은 진로인식, 미래직업결정과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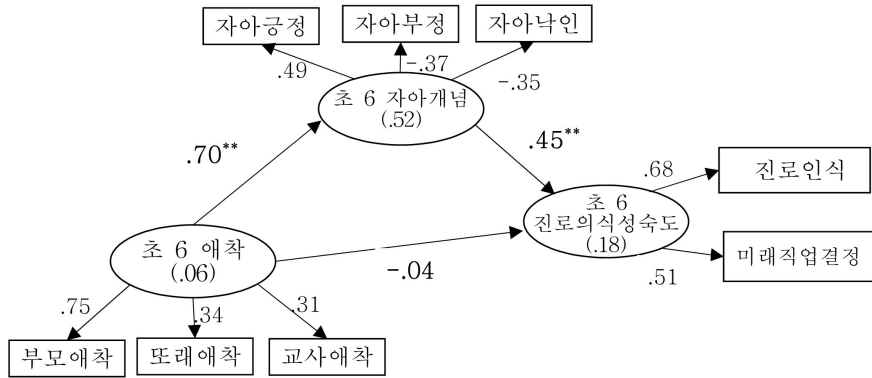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이 자아개념을 통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성별, 부모의 학력, 가구평균월수입,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통제변인으로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그림 1〉은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지각하고 있는 애착은 초등학교 6학년의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70, p < .001$). 즉 부모, 또래, 교사 등과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

〈표 3〉 분석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a												
2. 아버지 학력	.00											
3. 어머니 학력	.00	.64***										
4. 월평균 가족소득	-.01	.34***	.33***									
5. 어머니 취업여부 ^b	.00	-.07***	-.03	.04*								
6. 부모애착	.10**	.11***	.11***	.07***	-.03							
7. 또래애착	.15**	.07***	.08***	.06**	-.04*	.24***						
8. 교사애착	.09**	.00	.01	.00	-.01	.25***	.09***					
9. 긍정적 자아개념	-.02	.12***	.13***	.08***	-.04†	.28***	.17***	.12***				
10. 부정적 자아개념	-.04	-.05*	-.06**	-.04†	.01	-.18***	-.03	-.07***	-.20***			
11. 자아낙인	-.10***	-.08***	-.04	-.03	.07***	-.20***	-.06**	-.01	-.11***	.21***		
12. 진로의식	.05*	.03†	.02	.00	.00	.14***	.10***	.00	.11***	-.11***	-.18***	
13. 미래직업결정	.07***	.06**	.06**	.01	-.01	.13***	.06***	.04*	.11***	-.06**	-.04*	.35***

a. (여성 = 1, 남성 = 0) b. (취업 = 1, 비취업 = 0)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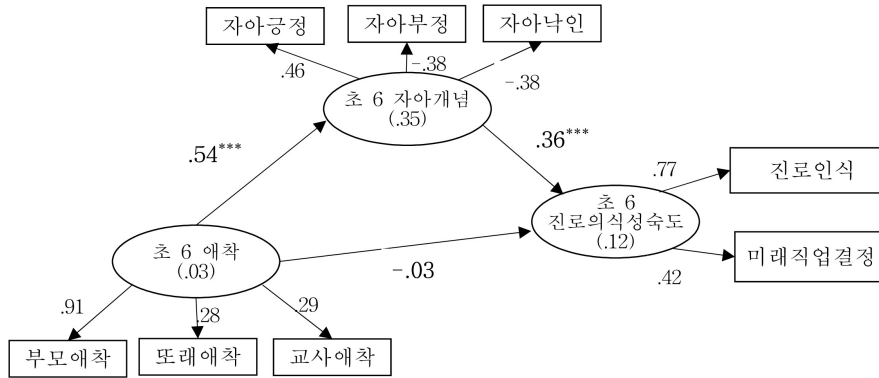


$\chi^2 = 247.42$ ($df = 42$, $p < .001$), $\chi^2/df = 5.89$, $CFI = .945$, $RMSEA = .041$ ($N = 2844$)

주. 통제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제시의 간결성을 위해 그림에는 제외되었음.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경로는 모두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 안은 R^2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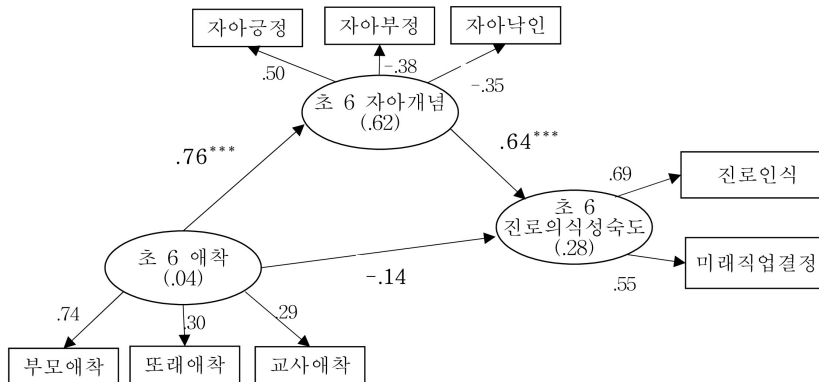
〈그림 1〉 초등학교 6학년의 애착,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



주. 통제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제시의 간결성을 위해 그림에는 제외되었음.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경로는 모두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 안은 R^2 .

*** $p < .001$, $N = 1524$

〈그림 2〉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주. 통제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제시의 간결성을 위해 그림에는 제외되었음.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경로는 모두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 안은 R^2 .

*** $p < .001$, $N = 1320$

〈그림 3〉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의 진로의식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45, p < .001$), 애착이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애착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아, 애착과 진로의식성숙도 간의 관계를 자아개념이 매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모델의 적합도는 $\chi^2 = 247.42 (df = 42, p < .001), \chi^2/df = 5.89, CFI = .945, RMSEA = .041$ 로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3.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앞서 평균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성숙도의 변인 중 대부분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나아가 애착이 자아개념을 통해 진로의식성숙도를 예측하는 경로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델 간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델분석결과를 나타내며 집단간 비교모델의 모델적합도는 $\chi^2 = 220.10 (df = 74, p < .001), \chi^2/df = 2.97, CFI = .960, RMSEA = .026$ 으로 역시 본 연구대상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 구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경로의 영향력 크기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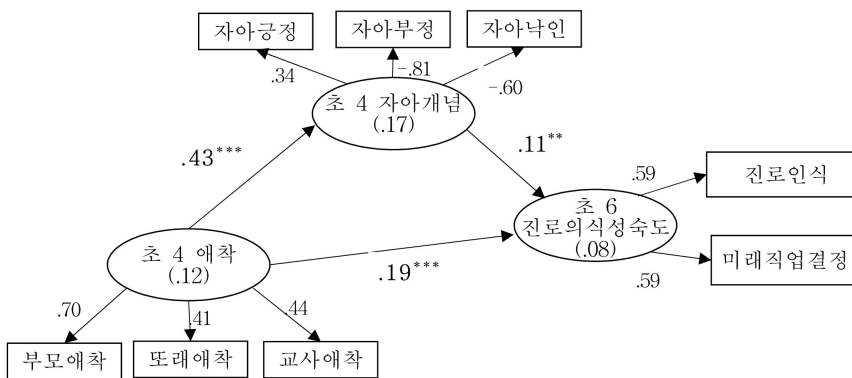
먼저 애착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경로결정계수는 $\beta = .54 (p < .001)$, 여학생의 경우 $\beta = .76, p < .01$ 로서 여학생의 경우에 애착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력도 여학생($\beta = .64, p < .001$)이 남학생($\beta = .36, p < .001$)에 비하여 큰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부모, 또래, 교사 등과 형성한 애착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예측하며, 자아개념은 애착의 영향

력을 매개하여 자아개념이 긍정적인수록 보다 성숙된 진로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영향의 경로 자체에는 성별 차이가 없으나, 애착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과 자아개념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더불어 설명하는 진로의식성숙도의 변량의 비율 역시 남학생은 $R^2 = .12$, 여학생은 $R^2 = .28$ 로 변인들의 설명력 역시 여학생 모델이 현저히 높았다.

4.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애착,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도 관계의 지연효과

본 연구는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성숙도 간의 동시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이전에 발달된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지연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애착과 자아개념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진로의식성숙도를 예측하는지 검증해보았다. <그림 4>는 초등학교 4학년 변인의 예측모델이며, <그림 5>는 초등학교 5학년 변인의 예측모델로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애착과 자아개념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진로의식성숙도를 예측하는 두 모델 모두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애착관계가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예측하였으며(4학년: $\beta = .43, p < .001$; 5학년: $\beta = .38, p < .001$),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이후 보다 성숙된 진로의식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4학년: $\beta = .11, p < .01$; 5학년: $\beta = .12, p < .01$)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연효과모델에서는 동시효과 모델과는 달리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애착이 진로의식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학년: $\beta = .19, p < .001$; 5학년: $\beta = .2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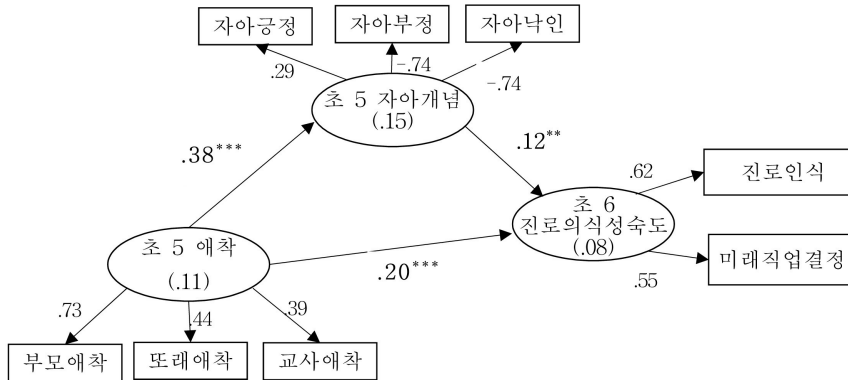


$\chi^2 = 586.42 (df = 42, p < .001), \chi^2/df = 13.96, CFI = .888, RMSEA = .068, (N = 2844)$

주. 통제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제시의 간결성을 위해 그림에는 제외되었음.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경로는 모두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 안은 R^2 .

*** $p < .001, ** p < .01$

<그림 4>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chi^2 = 426.39$ ($df = 42$, $p < .001$), $\chi^2/df = 10.15$, $CFI = .925$, $RMSEA = .057$ ($N = 2844$)

주. 통제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제시의 간결성을 위해 그림에는 제외되었음.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경로는 모두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 안은 R^2 .

*** $p < .001$, ** $p < .01$

(그림 5)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즉, 발달의 이전 시기에 형성된 애착과 자아개념이 이후 진로의식의 성숙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모델적합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변인의 예측모델의 경우 $\chi^2 = 586.42$ ($df = 42$, $p < .001$), $\chi^2/df = 13.96$, $CFI = .888$, $RMSEA = .068$ 로 바람직하지는 하나 우수한 적합도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예측모델은 보다 우수한 모델적합도를 보여 ($\chi^2 = 426.39$ ($df = 42$, $p < .001$), $\chi^2/df = 10.15$, $CFI = .925$, $RMSEA = .057$) 지연효과의 시간차가 많아질수록 변수 간의 인과관계설정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3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자아개념의 역할을 성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애착과 자아개념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은 애착이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였다. 다시 말해 아동이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미래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직업개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착이 적극적인 주변탐색의 기반이 되어 보다 긍정적이고 자신있는 자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Blustein 외(1995)의 주장과 이사라와 박혜원(2005) 및 홍세희 외(200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애착으로 예측된 자아개념은 진로의식성숙도에 기여하였는데, 이는 진로의식 성숙에 있어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Super 외(1996)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실증적 증거가 미약했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과 진로의식의 성숙 간 관계에 있어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찾아내었다.

둘째,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성숙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대부분에서 유의한 성별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자아낙인, 진로의식, 그리고 미래직업결정 정도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의 경우에 애착이 자아개념에, 그리고 다시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남학생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의식성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설명력 역시 여학생 모델이 높았다. 본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관계와 진로성숙도를 살핀 박효희와 성태제(2008)의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이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며, 이는 여학생과 부모가 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의한 성차에 대한 결과는 진로의식의 성숙과 관련된 변인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남학생의 경우에 애착이나 자아개념 이외에 미래의 진로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는 다른 제 3의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경우 자아개념에서 대인관계나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운동 및 신체적, 성취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진화, 전경숙, 1995; Mboya, 1999)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남학생은 애착이라는 관계적 변수 이외에 학업 성취도나 운동능력 등의 다른 요인이 자아개념, 나아가 진로의식성숙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성취나 부모의 감독, 비행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 인과모델을 구성하여 상대적 영향력의 성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단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의 애착과 자아개념이 현재의 진로의식성숙도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지연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진로의식성숙도를 조사하기 1-2년 전, 즉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애착과 자아개념도 유의하게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초4 모델과 초5 모델의 모델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초5 모델의 경우 적합도가 우수하나, 초4 모델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연효과의 시간차가 증가할수록 인과관계 모델의 타당성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걸친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던 진로관련 연구의 대상 연령을 낮추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진로의식성숙에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애착 및 자아개념이 이 시기 아동들이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의식의 발달이 전생애를 걸쳐 일어난다는 Super(1957)의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향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직간접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진로의식의 성숙과 발달에는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애착과 자아개념 발달이 여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직업교육이나 진로지도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욱 다양하게 탐색하여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는 '진로발달의 성장기'로 분류되는 13-14세 시기(Super, 1957)로서 이 시기에 적합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이해해야 한다. 즉 부모만의 영향으로 진로의식을 설명하기 보다는, 이 시기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가까운 친구와 교사, 그리고 나아가서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영향 등도 진로의식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지도가 일방적인 교육의 형식이 되기보다는 부모교육, 학교 내 또래관계의 증진, 교사의 멘토십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정확하고

진정한 직업군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직간접적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던, 진로의식성숙의 발달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또래,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포함한 변인을 선정하여 진로의식성숙을 예측하는 보다 폭넓은 맥락을 연구의 틀로 잡았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미비했던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자아개념의 성차를 검증하고, 중단연구의 장점을 살려 애착과 자아개념의 지연효과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면, 이에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장기간의 종단적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안정성 및 자아개념이 이후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 자료수집이 진행된 이후, 보다 장기적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및 소득 등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자료 외에는 모두 학생 본인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즉,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이나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에 대한 성숙된 의식 간 유의한 연관성의 일부가 아동 본인의 응답으로만 이루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한계점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교사가 이해한 아동의 자아개념 등 다양한 응답원을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진로의식 발달의 제이론을 바탕으로 애착,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성숙도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유의한 관계와 전반적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나, 이 관계는 연구자의 가설에 의한 관계이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은 상호교환적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아동들이 또래 및 교사들과 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관계의 안정성이 진로의식의 성숙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단자료를 이용해 인과관계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 변인간 영향력의 상호교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준규, 구만호(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 치료, 12(1), 137-152.
- 구승신, 박성현(2007). 초등학생의 직업성숙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1), 119-131.
- 김충기, 천귀순(2003).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 특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1-20.
- 박효희, 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서경아(2003).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영, 김누리(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탐색.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2), 185-199.
- 신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중순(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사라, 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163-181.
- 이은혜, 고윤주(1999). 대학생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일반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37(3), 201-219.
- 이주리(2009).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30(2), 2009.
- 이진화,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5.
- 지용근, 양종국(200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1-18.
- 채진영(2009).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제 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7-50.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2006). 다중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1.
- Bailey, L. J., Stadt, R.(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L: McNight.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owlby, J.(1982).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ole, D. A., Martin, J. M., Peeke, L. A., Seroczynski, A.D., & Fier, J.(1999). Children'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academic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differences, depression, and anxiety. *Child Development*, 70, 459-473.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ass, M., & Tubman, J.(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561-574.
- Felsman, D. E., & Blustein, D. L.(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 Greenberg, M. T., Siegal, J. M., & Leitch, N.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2, 373-386.
- Hoffman, M., Levy-Shiff, R., & Ushpiz, V.(1993).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 soci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2, 23-31.
- Kenny, M.(1990). College seniors' perceptions of parental attachment: The value and stability of family 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39-46.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 703-716.
- Lapsley, D., Rice, K., & FitzGerald, D.(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Mboya, M.(1999). Multiple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concept: Relations with Age, Gender and Scholastic Measur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0, 388-398.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etheny, J., McWhirter, E. H., & O'Neil, M. E.(2008). Measuring perceived teacher support and its influence o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218-237.
- O'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69.
- Paterson, J., Pryor, J., & Field, J.(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ice, K. G.(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6.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1996). The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Tuckman, B. W.(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접 수 일 : 2010년 3월 1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18일